

전주국제영화제, 독립영화 여성 감독 조명

7명 작품 15편 소개 특별전 '스페셜 포커스: 인디펜던트 우먼' 공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세계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여성 감독 7명을 집중 조명한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8일 독립영화 여성 감독 7인의 작품 15편을 소개하는 특별전 '스페셜 포커스: 인디펜던트 우먼'을 공개했다. 스페셜 포커스는 창의적, 혁신적 실험 정신을 지닌 독립·예술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그해 가장 중요한 화두 또는 복기해야 할 주제를 제시하며, 올해는 두 가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중 처음 공개하는 '스페셜 포커스: 인디펜던트 우먼'은 지난 20년 넘게 독립영화를 지지한 영화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목소리를 발굴하고 새로운 영화 역사를 만들려는 대안적 시도로 독립영화를 만든 여성 감독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1950년대 활동을 시작한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선구자 체칠리아 만지니 감독과 1970년

대 여성 실험영화 집단 카이두클럽을 이끈 한옥희 감독, 20세기 이란 뉴시네마의 대표 감독이자 시인인 포루고 파로흐자드 감독을 조명한다.

또 1970년대 미국 최고의 독립영화 중 한 편을 연출한 바바라 로든 감독, 프랑스의 대표적 스타이자 감독인 안나 카리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자신만의 영화 형식을 개척한 세릴 두네이 감독, 뉴아르헨티나 시네마의 초기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베르티나 카리 감독의 작품 세계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세계 대전 후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최초의 여성 다큐멘터리스트 만지니 감독의 작품 6편이 소개된다. 만지니 감독은 도시 개발의 이면, 종교와 파시즘의 결탁, 노동자와 여성의 현실 등 다양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파고들고도 독특한 연출력으로 풀어냈다.

또 1970년대 유신정권 시기에도 여성 영화인

의 활동과 실험영화 제작에 앞장선 개척자인 한옥희 감독의 작품 4편도 관객들을 만난다.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작품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폐쇄적인 이란 사회의 정치와 종교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파로흐자드 감독의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인 '검은 집'과 배우로 더 잘 알려진 로든 감독과 카리나 감독의 대표작 2편도 소개된다.

1990년대 '뉴키어시네마'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에 아프리카계 미국 레즈비언이 연출한 첫 번째 장편 극영화 '워터멜론 우먼'을 만든 두네이 감독과 아르헨티나의 군사정권에 부모가 납치된 자전적 경험을 투영한 영화 '남발머리 부부'도 주목해 볼만하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당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시대적 관습을 이유로 작품이 가진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화 형식을 제시하고 금기시된 주제를 내세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집단에 대한 공감을 이야기하는 등 거침없는 도전을 시도했던 감독들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제3회 우리영화만들자 순창청소년 겨울영화캠프'를 통해 만들어진 단편영화가 지난 6일 순창의 작은 영화관인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우리영화만들자 순창청소년 영화캠프 시사회 가져

지역 중·고등학생 12명 직접 제작·출연한 단편영화 2편

'제3회 우리영화만들자 순창청소년 겨울영화캠프'를 통해 만들어진 단편영화가 지난 6일 순창의 작은영화관인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이번 시사회에는 영화제작에 참여한 청소년과 가족 등 순창군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소개된 단편영화는 순창지역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2명 등 총 12명이 직접 제작하고 출연한 두 편의 단편영화로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의 영화캠프를 통해 만들어졌다.

단편영화는 순창여중 2학년인 경소희 감독이 연출한 '용만아, 어디가니'와 같은 학교 2학년인 김이원 감독이 연출한 'What's your name?' 등 두 편으로, 본 작품 상영 전에 2주간의 영화 촬영현장을 기록한 메이킹 영상도 같이 상영됐다.

제작을 응원한 시사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준 동계중·고교 오영석 교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출연한 뜻 깊고도 매우 감동적인 영화"라고 감사를 표하고 출연진과 영화캠프팀에 찬사를 보냈다.

이와 함께 'What's your name?'의 주연인 강도희 역의 어린 도희 역으로 출연하여 눈물남기를 보여준 순창초 4학년 김나연 학생은 "다음 영화에도 꼭 출연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영화캠프를 지도한 관계자는 "영화제작이라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가능하게 해준 순창군을 비롯해 제작, 진행, 맛있는 간식 등으로 다양한 도움을 주신 많은 단체와 개인에게 고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팔복예술공장 예술인과 함께하는 유아 예술놀이 오픈

전주문화재단, 3월 한 달 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프로그램 진행

전주문화재단이 '공장에서 놀이하디'라는 주제로 팔복예술공장 유아 예술놀이 3월 프로그램을 오픈했다고 전했다.

팔복예술공장은 지난 2019년 문화예술교육육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의 전국 1호로 개관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아 예술놀이 전용 공간을 중심으로 유아와 가족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지난 6일 진행된 첫 프로그램은 팔복예술공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야외 프로그램으로 편성, 재즈피아니스트 김성수, 베이스리스트 김윤성의 재즈 연주로 그문을 열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놀이처럼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팔복

예술공장 내 다양한 야외 공간들을 활용해 안전한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13일은 홀라댄스를 중심으로 한 놀이와 몸짓 프로그램(차민영 홀라댄서), 20일은 역할극을 중심으로 한 연극놀이(오지은 연극배우), 27일은 쓰지 않는 장난감을 활용한 정크아트(김준우 작가)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3월 한 달 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예술인과 함께하는 유아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팔복예술공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 후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즈피아니스트 김성수 씨는 "그간 팔복예술공장은 주로 창작공간과 데이트 명소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예술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 반가웠고, 아이들과 시민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시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월 이후의 유아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여 가능인원과 프로그램 내용을 정비해 월별로 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 또는 전주문화재단 예술놀이터(063-283-9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이 '공장에서 놀이하디'라는 주제로 팔복예술공장 유아 예술놀이 3월 프로그램을 오픈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 참여 작가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도내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 분야 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1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각 분야 예술인의 독창적인 작품을 활용해 아트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원작으로 아트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예술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수익 창출을 통해 지속적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예술인 모집 공고는 오는 29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를 내려받아 29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창작 활동 실적(최근 3년)이 있는 시각예술 분야 전업 작가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심사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18명 내외의 최종 예술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예술인에게 작품기반 아트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량강화 교육과 아트상품개발을 위한 개발비, 그리고 홍보와 판매를 위한 개발상품 전시 및 결과 도록 제작을 지원한다.

재단에서는 일시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자생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내·외 관련 기관과 사업을 발굴하며, 특히 개발상품 판매실적과 관리현황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아트상품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돼 예술의 부가가치와 예술인의 수익 창출이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화사업팀(063-230-744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